



제48회기 뉴욕목사회는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7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베데스다교회에서 개최했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 장소를 제 공한 베데스다교회의 김원기 목사, 5번째 회장 이준성 목사, 6번째 설교자 문석호 목사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 미스바 대회개금식성회 등 논의

제48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7일(금) 오전 10시30분 베이사이드에 있는 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개최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제48회기 뉴욕목사회는 12월 초 회기의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19일에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금년 1월 23일에 최요한 목사(서울명동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신년 기도회를, 27일에는 정부흥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욕목사회는 3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2박3일 동안의 일정으로 '미스바 대회개금식성회'를 갖는다. 한국에서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집회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50명만이 미국항공권을 구입했다"고 회장 이준성 목사는 보고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한국에서 참가하는 50명의 목회자들은 왕복 항공료만 자신들이 부담하고, 접대비 등은 뉴욕목사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오는 집회 참가자들은 왕복 항공료 뿐만 아니라 뉴욕 체재 중에 발생하는 경비 일체를 자신들이 부담해 왔었다. 한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등은 "교회들과 목사회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집회는 9일(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일(화)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1일(수)은 오전 5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뉴욕새히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목사, 사모, 신학생, 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이지만, 일반 성도들도 참가할 수 있다. 모두 9명의 강사(한국 5명, 뉴욕 4명)가 단에 설 예정이다. 성회를 위한 제2차 준비 기도회는 2월 28일(장소 미정)에 열릴 예정이다.

2020년 부활절 연합찬양제는 4월 19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차 임실행위원회 = 1부 예배는 미스바 대회개금식성회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가 인도했다. 찬양분과위원장 김정길 목사가 인도한 경배와 찬양, 묵도, 찬송 309장, 목회분과특별위원장 임병남 목사의 기도, 전 회장 문석호 목사의 성경 봉독과 말씀, 합심 기도, 찬송 314장, 서기 이기웅 목사의 광고, 문석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전 회장 심화자 목사가 '3월에 있을 미스바 대회개금식성회와 성령충만을 위하여', 협동총무 엄달호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신입회원분과특별위원장 하정민 목사가 '뉴욕교포사회를 위하여', 목회자윤리분과특별위원장 이규형 목사가 '뉴욕교계를 위하여'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문석호 목사는 요한복음 21장 1-17절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문 목사는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회 현장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설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이준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획위원장 이재덕 목사의 개회 기도, 총무 마바울 목사의 사업 보고, 서기 이기웅 목사의 행정 보고, 회계 박도보라 목사의 회계 보고, 안건 토의,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미스바 대회개금식성회, 부활절 연합찬양제, 목회자수련회 및 선교지 방문 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다.

▶ 미스바 대회개금식성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김희복 목사 △준비위원-박이스라엘, 박황우, 심화자, 하정민 목사가 맡았다.

▶ 부활절 연합찬양제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이재덕, 김정길 목사 △준비위원-전체 기획위원

▶ 목회자수련회 및 선교지 방문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지인식 목사 △위원-전체 임원이 맡았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